

SM, 탱크로리 전복으로 대량 유출

군산, 오전 11시께 1만8000리터 도로에 쏟아져 ... 4시간 방제작업

1월9일 오전 11시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개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이모(52)씨가 몰던 32톤 탱크로리 자동차가 전복됐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화학약품 SM(Styrene Monomer) 약 1만8000리터가 도로에 쏟아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재 약 4시간 동안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에 실린 약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09>